

## 귀순자를 통해서 본 북한의 실상과 변화

김 광 옥

나는 평양 강동구 출생으로 평성공대를 졸업하고 3대혁명 소조원으로 있다가 1993년 10월 13일 중국으로 탈출하여 1994년 3월 31일 서울로 귀순했다. 현재 농협에 근무하고 있으며, 탈북자들로 구성된 연극 '코리랑'에 출연했다.

내가 탈북하게 된 경위는 출신성분이 안 좋아 원하는 곳에 취직이 안 되어서 기인한다. 나는 언론사나 경찰청 등에 취직되길 원했으나, 중국에서 살다운 이력과 중국에 친척들이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출신성분이 안 좋게 기록되어 다른 곳으로 배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점을 발견하게 된 것은 대학때였는데, 이 때부터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골동품 장사를 하게 되었다. 골동품 장사로 꽤 재미를 보았으나 발각되어 중국으로 도피하였는데, 이때 남한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접하게 되어 남한으로 귀순하게 되었다.

남한사회로 귀순 후, 많은 사람으로부터 북한에서의 정치학습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남한사람들의 예상대로 북한에서의 교육에 있어 많은 부분이 정치교육에 힘쓰게 된다. 북한이라는 사회가 정치가 우선인 사회이므로 정치교육에 있어서는 한 글자만 틀려도 모두 틀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생활총화를 매주에 1번씩 하며, 토론시간을 자주 갖는데 그것 역시 정치교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육 역시 전공공부 외에 김일성·김정일에 관한 과목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내가 한국에 와서 많이 느낀 것은 한국의 대학생들은 포괄적인 지식이 풍부하여 자신의 전공 이외에 포괄적으로 논할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틀을 벗어나면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 또한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는 늘 과제가 주어지므로 남한사람들처럼 경험의 축적이라든가 여가활동은 찾아볼 수가 없다. 더군다나 대학이 군대체제로 됨으로써 유사시 학생들이 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활에 여유나 낭만은 없다. 내가 남한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것이 남한사회의, 특히 대학생들의 음주문화였는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음주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요, 여유도 없다.

북한의 교육 특히 대학교육을 말하면서 또하나 얘기를 한다면 대학생의 선발기준이다. 고등중학교 수료 후 북한의 학생들은 대학이나 군에 가게 되는데, 대학이나 군에 감으로써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 대학입학인데 북한에서의 대학생 선발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 대학입학자격시험을 보고 그 순위에 따라 대학과 과를 배정받게 된다. 따라서 대학입학까지는 출신성분에 대한 고려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졸업후에는 출신성분이 크게 좌우한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귀순 후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은 북한의 대남선전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TV채널을 통해 외국의 실상을 보도하는 것은 많지 않다. 남한의 데모에 관한 자료는 화면보다는 설명이 많다. 많은 경우,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이용하여 대남흑색선전을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나 80년대 말 이후는 그들과 북한주민과의 접촉은 그다지 많지 않다. 나 역시 남한에서 넘어온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거의 말이 없었으므로, 남한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엄청날 것이라는 추상적인 예측밖에는 할 수 없었다. 아마 그들이 말이 없었던 것은 말을 잘못했을 경우, 가차없이 처형을 받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고 있다시피 북한사회는 뇌물만능의 사회다. 북한은 단순한 뇌물로도 모든 것이 통하는 사회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물자가 풍부한 농촌, 공장 등의 소조를 선호하게 된다. 나 역시 골동품 밀매를 하면서 이러한 뇌물만능의 사회체계를 몸소 경험하였다. 90년대 이후 이러한 풍조는 심해져서 북한사회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나는 지금까지 북한사회의 모습들을 북한사회의 작은 부분들을 빌어 설명하였다. 귀순 후 남한사회와 대비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20여년을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왔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이 글의 말미를 빌어 내가 귀순 후 남한사회를 살아가는 느낌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하면서 끝을 맺을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남한사회에서 돈을 버는 느낌, 목적, 그리고 불만 등에 대해 질문을 한다. 난 각자의 보수에 대해 철저한 남한사회의 구조에 대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앞서게 되어 좋다. 내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개인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고 속이는 남한사회의 인간관계를 느끼고 난 후 사람들을 경계하게 된다. 또한 뉴스를 장식하는 권력형 비리에 관한 사건을 볼 때에는 심리적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20여년 간 뜬 눈으로도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던 북한이라는 사회에서의 생활보다는 지금 남한사회에서 나의 보수에 대해 철저하며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생활이 나는 행복하다.